

# 해방공간 : 제주 4.3사건

담당교수 : 배민재

# 1945~1952년 연표

- 1945. 8.15. 해방
- 1946. 6.3. 이승만 정읍에서 남한단독정부수립 주장  
(이른바 '정읍 발언')
- 1948.3.1. 하지 남한총선거 실시 발표  
4.3. 제주 4.3 사건
- 1948.8.15.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  
10.20. 여수. 순천반란사건(27일 진압)
- 1950.6.25. 한국전쟁
- 1952.1. 휴전

# 좌익 & 우익

-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로 보수주의가 우익, 진보주의가 좌익으로 통용
- 전통적으로 좌파는 진보주의, 사회자유주의, 사회민주주의, 사회주의, 공산주의, 무정부주의 등을 의미
- 전통적으로 좌파는 진보주의, 사회자유주의, 사회민주주의, 사회주의, 공산주의, 무정부주의 등을 의미
- 우익은 보수주의, 반동주의, 왕정주의, 국가주의, 파시즘, 전통주의 등이 포함
- 현대의 정치적 용법은 좌익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평등을 주장하고 우익은 "오른쪽"에 의한 상류 계급을 옹호, 능력주의를 주장

# 영화 <지슬>

- 네 개의 소제목 - 신위, 신묘, 음복, 소지(제사의 구성)
- 1948년 제주 봉기 기간을 배경으로 두 집단의 사람들에게 초점
  - 무장 군인을 피해 60일 동안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던 마을 사람들
  - 해안선에서 5km 밖에 거주하는 사람은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간주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들
- “해방된 한국에서 제주만큼 정치적 갈등으로 고통을 겪은 장소는 없다. 한국 전쟁기 동안 제주보다 더 조용했던 곳이었다. 제주는 미래의 전쟁 곧 다가올 갈등의 저조로서 그들의 내란적이고 혁명적 성격을 최고로 표현하였던 이 만위원회에 대한 전쟁을 겪었다. 제주는 전후 한국 정치의 확대경이고 현미경이다.” - Bruce Cummings,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. II: The Roaring of the Cataract: 1947-1950 (Princeton University Press, 1990), p. 251

# 제주 4.3 사건 1

- 1947년 3.1절 기념 투쟁
  - '부산 3.1절 기념 시민대회'에서 경찰이 총 발포
  - 1947년 제주도 3.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이 총 발포  
(제주 4.3 사건을 불러일으킨 씨앗)
    - > 1947년 3월 10일부터 제주도 민관 총파업 돌입
-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, 남로당 제주도당의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, 경찰서 급습
- 미군정은 1948년 4월 5일 '제주도 비상경비 사령부' 설치

## 제주 4.3 사건 2

-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선거에서 제주도는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처리
-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
- 1948년 10월 11일, 제주도 경비사령부 설치
- 1949년 3월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설치, 선무작전 병행
- 1949년 5월 10일 제주도 재선거 실시
-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
  - 요시찰자 그리고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 검속

# 남로당은 어떤 조직인가?

- 해방정국 당시 군내 좌익 조직
  - 남로당 중앙당에서 직접 관할하는 장교들의 조직인 '콤 서클'
  - 남로당 지방 도당에서 관할하는 병사들의 조직인 '병사 소비에트'
  - 북로당(북한 조선로동당의 전신)이 경상남도 일대에 조직한 '인민혁명군'
- 인민혁명군은 1천5백93명에 달하는 지하세력으로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에도 침투(1947년 초 붕괴)

# 서북청년단은 어떤 조직인가?

- 일명 서청(西靑), 우익청년단
- 1946년에 서울에서 결성, 이북에서 월남해 남한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해 합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을 활용해 좌익 공격에 앞장서도록 함.
- 4.3 사건과 서북청년단 - 1947년 3.1사건 이후 제주도 파업사태에 투입, 남로당이 봉기를 결심하게 되는 한 원인으로. 또한 본격적인 초토화작전이 진행되면서 경찰과 국방경비대 측의 요청으로 서북청년회 회원들이 대거 경찰과 국방경비대에 입대해 토벌작전에 종사.



## 4.3사건의 기억

- official history :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원들이 일으킨 폭동  
→ 언급이나 논의의 대상 X
- 제주의 기억 : 공간적 제한성과 고립성  
→ 강력한 정체성을 가진 로컬 기억
- 개인 기억 < 가족 기억..... < 로컬 기억 ..... < 국가 기억
- 2000년 전후 4.3 사건 공론화  
: '세계 평화의 섬', '국제자유도시' 지정

## 4.3사건의 희생자

- 무장대(제주도민&남로당) 소속 희생자
  - 토벌대(군경, 서북청년단 등) 소속 희생자
  - 무장대의 습격으로 희생된 민간인
  - 토벌대의 처형으로 희생된 민간인
- 
- \* 우리가 영화 <지슬>에서 양민과 군인 외에 무장대(남로당의 편에 선)의 모습을 목격할 수 없는 이유?
    - 4.3 희생자들을 순진하고 무지한 선량한 존재들로 간주함으로써 윤리를 당위적이고 순수한 것으로 강조

# 여순사건의 발단

- 여수에 주둔 중 제주도의 소요를 진압하러 가라는 명령을 받은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중 남로당 계열이 다수 침투해 있던 1개 대대의 군인들이 상부 명령을 거부하고 현지에서 반란 주도
-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?
  - 당시 국군과 경찰 사이의 알력 문제 : 왕년의 일본 순사가 그대로 경찰, 국군의 경찰 경멸 풍조 만연
  - 좌익의 국방경비대/국군 입대 현상
- 1948년 10월 - 제주도 4.3 사건에 파견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키는 지시 하달

# 현기영, <순이 삼촌>(창작과 비평사, 1978)

- 문학에서 가장 먼저 4.3사건을 표면화
- 서술자( '나')가 친척 아주머니 '순이 삼촌 ' 의 죽음을 알게 되고 그 원인을 밝히는 과정
- 등장인물들의 회상과 증언을 통해 제주도민의 경험을 드러냄  
→ 국가권력에 의한 양민학살, 반공이데올로기의 폭력성

cf) 국가에서는 이후 약 50년간 4.3사건에 대한 논의를 억압

ex) 백조일손지묘(百祖一孫之墓) 해체